

# 광주·여수 요양병원서 코로나 확진자 속출...대부분 돌파감염

### 각각 61명·14명 확진, 일시 폐쇄·격리...전국 5일째 2천명대 방역당국,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광주에서 요양병원과 대형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지역 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선제 검사에서 10명이 넘는 환자가 집단감염됐다. 방역당국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선 마스크 쓰기과 손씻기 등이 중요하며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3명, 광산구 소재 삼성전자 공장 관련 2명이 확진됐다. 다른 지역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해 감염된 시민이 3명이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확진됐다. 삼성전자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

광주 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들은 모두 동일집단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0일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서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대부분이 돌파감염 사례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오는 21일까지 병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으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 1회씩이었던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도 15일부터는 1주 2회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늘면서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마련된 중증전담 병상도 총 29개 병상 중 14개 병상(전남 환자 7명)이 사용 중이고, 잔여병상은 15개로 줄었다.

전남에서는 연일 20명 안팎의 신규 확진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금) 19명, 13일(토) 26명, 14일(일) 오후 2시 현재 10명이 각각 확진되면서 전남 누적 확진자는 3851명이 됐다.

전남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여수지역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대응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입소자 104명, 종사자 103명 등 모두 207명이 있는 여수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4명(입소자 10, 종사자 4명)이 확진됐다.

지난 12일 선제검사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

된 뒤 방역당국은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조치를 단행하고 역학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14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419명이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39만5460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집계 때(2325명)보다 94명 늘었다. 지난 10일(2425명) 이후 다섯 연속 2000명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1주간(11.8~14)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758명→1715명→2425명→2520명→2368명→2325명→2419명으로 하루 평균 2219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2200명이다.

이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서울 969명, 경기 797명, 인천 155명 등 총 1921명(80.0%)으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은 부산 82명, 대구 72명, 충남 53명, 전북·경남 각 44명, 경북 41명, 강원 31명, 충북 27명, 전남 26명, 광주 19명, 대전 18명, 제주 14명, 울산 7명, 세종 2명 등 총 480명(20.0%)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전남(14명)보다 4명 많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능 앞두고 스테디카페 방역  
지난 12일 광주 북구 운암1동의 한 스테디카페에서 북구보건소 감염병 예방팀 직원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생활 속 작품으로 대중화 K-컬처 선도

### 코로나19에도 41만명 관람

'수목'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국제행사인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국내외 문화예술 관계자와 대중의 기대와 관심 속에 2개월간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성과회의를 개최했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세계 15개국, 200여 작가가 참여한 '오채찬란 노코롬'이란 주제로 수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K-컬처를 선도하는 콘텐츠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41만명의 관람객(현장 10만5000명, 온라인 30만5000명)이 전시관을 찾아 당초 목표(30만명)를 초과 달성했다. 철저한 방역과 다양한 생활 속 수목 작품 연출로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종합

8.77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박대상, 이응노 등 수목의 대가부터 우국원, 김지희, 윤형근 등 장르를 파괴하는 유명작가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여기에 도예가 유의정,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등 생활 속 수목을 보여주는 작가와 이탈리아의 안토넬라 레오나, 벨기에의 쿤텐트 브룩, 중국의 저지우 등 수목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내외 내로라하는 유명작가 작품을 전시해 수목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차별화한 VR 전시를 비롯해 수목 패션쇼 및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 온라인 수목 웹 전시관에는 하루 평균 5700명 이상 관람객이 찾아 큰 인기몰이를 하며 비대면 전시 관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작가 32명의 전시 참여와 수목 깃발미술제, 아트마켓·페

어에서 959점 판매, 도슨트(10명) 등 부대 프로그램 12종에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참여시켜 집체한 지역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입장권 구매자에게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또 팬들이 두터운 송가인, 포레스텔라와 전시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 '수목다큐' TV 방영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에 국제수목비엔날레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목의 가치를 알렸다.

한국수목에 대중과 문화예술인의 관심을 높여 문화예술계에 한국화, 수목에 대한 논의를 확산했으며, 동양화 작가와 전주한지 등 관련 산업으로 저변이 확대돼 K-컬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점은 가장 주목할 성과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431억원 지급

### 오늘부터 소농직불금 120만원, 면적직불금 평균 310만원씩

전남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431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본격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2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8만1000명에게 120만원씩 총 984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1만1000명에게 1인당 평균 310만원씩 총 3447억원을 준다.

지금은 사군에서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접수,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립농산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10% 감액 적용되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日, 약탈문화재 한국에 돌려달라”

###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국제사회 호소 캠페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일본 정부에 약탈문화재를 한국에 돌려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캠페인을 13일부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은 디지털 포스터 제작 배포와 이 포스터를 전면에 내세운 국제 청원 제기 등으로 진행된다.

“혹시 일본의 국가브랜드가 약탈국가?”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대한민국 국기를 바탕으로 일본에 약탈당한 한국의 문화재를 보여준다.

포스터에는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약탈 국가라 불릴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는 문화재 원소유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약탈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줘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넣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지저스 칼리지는 지난달 식민지 시대였던 1890년대 서아프리카에서 약

탈한 문화재를 반환했고, 프랑스 하원도 지난 해 서아프리카의 베냉과 세네갈에서 100여 년 전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포스터에는 “일본이 약탈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청원(maywespeak.com/treasure)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에서는 “한국의 해외 유출 문화재 20만 점 중 44%를 일본이 소장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 점령의 위법성을 부정하면서 이는 국제법을 따른 것이며 위법 행위가 아니며, 정당한 경우로 문화재를 일본이 소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고발했다.

이어 ▲유네스코는 문화재 본래 생산·소유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는 약탈 의혹이 있는 문화재의 출처를 조사하며 ▲일본 국회는 약탈 문화재 반환 법률을 입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현영. 010-6837-4700

**처분하기 교환**  
힘든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기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군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광주군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돌외벽 스킨라폼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군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8만원
- 3. 다기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군 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 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기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6십5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군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군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매 캠퍼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힐플러스길 건너편 동평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부 010-3454-2389

###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증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권 공고)

주식회사 태성이앤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현석이앤씨(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1년 11월 11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업)의 일부인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포괄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 9(합병)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 익일로 부터 1개월 내로 본 회사에 이의할, 주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면의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제410027호)  
"갑" 주식회사 태성이앤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46-2(소촌동)  
대표이사 이진국  
"을" 주식회사 현석이앤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영로 11155(오현동)  
대표이사 김중석

### 판결공시

- 제1심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정59  
절도
- 피고인: 위세량  
위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년 9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최현정

### 산행안내

11월14일(일) 경북 청송 주왕산  
▲광주서산악회 11월14일(일) 경북 청송 주왕산  
원광, 주산지, 트레킹 산행, 영주체육관 05:30, 동  
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  
예후문 05:55, 비엔주차점 06:00 \* 다음카페 광주  
서산악회 ☎ 010 7794 6920

###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중앙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학 675-6605
- 신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지평 376-6511
- 충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윤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첨단 973-2900
- 천안 955-0451
- 광산 944-0444